

## ▶ 소비자·가족자원경영

## 작목별 농가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분석

-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

최 윤 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 경 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조 예 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이 진 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인간의 행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기에 시간사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생활시간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생활시간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사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 부부의 일일 시간사용 구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노동시간 구조를 작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농업인의 노동실태 분석자료는 노동정책 및 여성의 기여도 추정에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에서 8개 지역을 선정하여 농한기와 농번기 2회에 걸쳐 시간일지표(time diary)를 사용하여 자기기입법과 면접조사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농가의 연령은 40대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평균 연령은 51.4세, 부인의 평균 연령은 48세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35.3%로 가장 많았다.

농번기 농가 부부는 남편의 경우 농업노동에 9시간 36분, 농업외 노동에 31분, 가사노동에 29분을 사용하여 총노동시간이 10시간 36분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농업노동에 7시간 6분, 농업외 노동에 23분, 가사노동에 3시간 42분을 사용하여 총노동시간이 11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 농번기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사용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한기 부인의 경우는 총노동시간이 8시간 48분(농업노동 3시간 6분, 농업외 노동 23분, 가사노동 5시간 18분)이었고, 남편의 경우는 총 노동시간이 7시간 12분(농업노동 5시간 12분, 농업외 노동 26분, 가사노동 1시간 36분)이었다. 농한기의 경우에도 농업노동, 가사노동 시간 사용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에 미맥농가 부인의 경우 총 노동시간이 11시간이었고, 시설원예농가의 경우 12시간, 과수농가는 11시간 6분, 축산농가의 경우 10시간 54분이었다. 반면 남편들의 총노동시간은 미맥의 경우 10시간 6분, 시설원예농가 11시간 36분, 과수농가 10시간 54분이었고 축산농가는 10시간 18분이었다. 부부간 노동시간의 차이는 주로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농번기 여성들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3시간 42분임에 비하여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29분으로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하여 7배나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수행하는 농업노동의 74%정도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남성들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13%정도 수준만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한기에는 전반적으로 농업노동 시간이 줄어 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들은 미루어 놓은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농한기에도 남성에게 비하여 많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 하고 있었다.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노동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노동분담 촉진 및 효율적인 노동수행을 위한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